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후보 인터뷰

“변호사 만큼 복지혜택 누려야... 회원 회비감면 추진”

6 황인태 중앙대학교 교수

회계사 선발인원 축소 필요
전체회원 중 약 35% 휴업회원
유연근무제 등 현업복귀 지원
“자부심 가질 수 있는 환경 조성”

황인태 중앙대학교 교수(63·사진)는 회계업계의 지략가이자 책략가로 통한다. 신 외감법이 시장에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철저한 연구와 분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황 교수는 지금도 현직에서 미래 회계사를 키우는 교육자다. 그의 공약이 ‘회계사 자부심’에 방점이 찍혀 있는 이유다.

황 교수는 11일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의 주요 현안으로 ‘회계사 증원 이슈’를 꼽았다. ‘증원반대’를 넘어서 ‘선발 인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공약이다.

황 교수는 “지난 2년 동안 회계사 선발인원은 30% 증가했다. 회계사 인력 문제는 절대 부족이 아니라 경력 단절과 감사업무 수행에 따른 위험이 증가한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전체 회원의 약 35%에 해당하는 7438명이 휴업 회원이다. 인력부족은 이들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

황인태 중앙대학교 교수 학력·경력

- 서울대 경영학 학사·석사
- 뉴욕주립대 경영학 박사
- 삼일, KPMG산동 근무(1980~85)
- 한국회계학회 회장(2015)
- 주기적지정제 등 회계제도 개선 책임연구원(2016)
-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사학기관 감리위원장
- 상장협·코스닥협회·IR협의회 자문위원
- 중앙대 학장·교학부총장/경영학부 교수

주요 공약

- 회계사 선발인원 축소
- Kicpa's Card(복지카드) 및 간편대출 등 복지제도 개발
- 법인 구성요건 완화와 지방 회계사회 활성화
- 소송전문위원회 설치



다”면서 “단시간 근무 등 감사시장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고, 휴업회원들이 현업에 빠르게 복귀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의 주요 공약은 ‘회계사 복지 확대’다. 젊은 공인회계사(CPA) 사이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공약이다. 회사의 복지정책에서 다소 소외되어 있는 중소형 로컬 회계사를 위한 공약이기도 하다.

황 교수는 “변호사 만큼 회계사도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고 했다. 변호사회에 ‘로이어스 카드(Lawyer's Card·변호사의 카드)’가 있듯이 회계사회는 ‘회계사의 카드(Kicpa's Card)’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황 교수는 “변호사회는 복지카드를 통해 호텔, 웨딩, 여학원 등 제휴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또 변호사회는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1억 5000만원을 한도로 하는 간편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면서 “한공회 회원이 2만 2000명을 넘어가고 있다. 추가 예산

을 들이지 않으면서, 이 같은 복지제도를 적극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 혜택과 함께 회원 회비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제안도 들고 나왔다. 휴업회원의 회비를 일정기간 50% 감면하겠다는 것이다. 줄어드는 회비는 필요없는 부분에서의 비용을 줄여 다른 회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 외감법의 ‘보완’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실제 신 외감법 도입을

앞둔 2016년에 황 교수는 주기적 지정제, 표준감사시간제 등 회계제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황 교수는 “새로운 회계제도는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에는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다소 있다”면서 “표준감사제의 경우 3년 정도 시행하면서 업계 자료 등을 모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법인 구성요건 완화와 지방 회계사회 활성화 ▲회원권의 향상을 위한 회계 연구원 설립 ▲소송위원회 설치를 통한 소송대응 지원 ▲전문가 징계의 균형적 해결책 모색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신 외감법이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많은 이슈가 있었다. 다른 업계와의 부딪힘도 감내해야 했다. 그 역할을 최종경 한공회 회장이 4년 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 교수는 ‘상생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이제까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상생과 협력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선배회계사의 고견을 청취하고, 후배 회계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환경을 만드는 회장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심리적 변화 주목해야”

최인철 서울대 교수
KPC CEO 북클럽 강연

코로나야 경제위기 굉장하 다른 패턴
경제 시스템보다 개인의 소비 위축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는 지금까지 있었던 것과 굉장히 다른 패턴이다.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논하려면 코로나19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일어난 심리적 변화를 파악해야 한다.”

포스트 코로나(코로나19 종식 이후 다가올 새로운 상황)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발생한 심리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국생산성본부(KPC) CEO 북클럽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인한 마음과 행복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했다.

최 교수는 “최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개인과 기업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고민과 분석의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등장하는 키워드는 경제 위기, 정치 위기, 국제 관계 등이다”라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여태까지의 경제 위기가 경제 시스템 실패로 인한 소비 감소 패턴이었던 반면 현재는 경제 시스템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이 자발적으로 돈을 안 쓴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밀레니엄 힐튼 서울호텔에서 열린 KPC CEO 북클럽에서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가 강연을 하고 있다. /KPC

이어 그는 “미국 경제학자 조셉 스티글리츠는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먹는 것 외에 돈을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대공황의 정의”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선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루함에 주목해 해결책 찾아야”

그는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감정 중 ‘지루함’에 주목했다. 최 교수는 “행복감을 측정할 때 짜증·우울·불안·스트레스·지루함 등 5가지 부정적 감정으로 측정하는데 짜증·우울·불안·스트레스는 상황이 나빠졌다가 회복되는 반복된 패턴을 보인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지루함이라는 감정은 회복되는 모습 없이 계속해서 안 좋아진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외출을 자제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지겨움 때문에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코로나19로 인한 행복감 감소폭이 젊은 층에서 크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일례로 여행·항공업과 문화·예술·공연 분야에 종사를 희망했던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진로를 바꿔야 하나를 두고 엄청난 혼란에 빠져있지만 우리 세대는 이미 직업이 있고,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서 비교적 영향이 적다”고 말했다.

◆“50대 이상부터 행복감 증가해”

또한 최 교수는 나이와 행복의 상관관계에 주목했다. 10대에서 20·30대로 갈수록 행복감이 낮아졌다가 50대 이상부터 다시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에 대해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생각이 명료해지고, 모든 것에 끝이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행동이 바뀐다”며 “젊은 시절에는 더 많이 배우고, 돈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등 확장에 집중했다면, 죽음을 인식한 순간부터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을 즐겁게 지내야 한다는 것으로 목표가 바뀐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줄이고, 가족, 친한 친구들을 만나며 행복감을 높이는 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50대 이상은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행복감 감소폭은 성별로 보면 여성, 성향으로 보면 외향적인 사람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태극당’, 국민추천 백년가게 1호 선정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으로 알려진 태극당이 국민들이 추천하는 백년가게 1호점에 이름을 올렸다. 강원 속초에 있는 서점 문우당서림, 경남 양산에 있는 신시대미용실 등 71곳이 백년가게에 추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박영선 장관, 조봉황 소진공 이사장, 배동욱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서울 장충동에 있는 태극당에서 ‘백년가게 국민추천 1호점’ 선정을 축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11일 오후 백년가게로 선정된 서울 중구 태극당에서 시민들이 빵을 구매하고 있다. /손엄지기자 son@

태극당은 지금은 고인이 된 신창근 대표가 해방 직후인 1946년 창업한 서울의 대표적인 빵집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소상공인, 지자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내년부터 1150억 가량 이자부담 경감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시중은행이 협의해 내년부터 이뤄지는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관련 수수료를 면제해줄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사나 폐업할 때 대형폐기물에 부착하는 배출신고필증(스티커) 판매처가 주민센터에서 인터넷과 편의점, 마트 등으로 넓어진다.

중소기업 읍무즈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자체 정책자금 중도상환수수료와 대형 폐기물 스티커 발급 불편사항 등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중소기업 읍무즈만 조종래 지원단장은 “광역지자체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에게 한 해 대출하는 정책자금은 약 11조 5000억원 정도로 이번 조기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통해 내년부터 연간 대출자금의 1% 수준인 1150억원 가량의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